

#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 목사 이형상의 순력 기록화, 제주 문화가 담기다

1702년(숙종 28) ~ 미상



### 1 개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1702년(숙종 28) 가을에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약 한 달 동안 제주를 순력(巡歷), 즉 각 고을의 방어 실태와 백성의 풍속 등을 시찰하며 기록한 화첩이다. 더불어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녔던 일상도 수록되었다. 화첩의 크기는 가로 36.4cm, 세로 56.9cm로, 그림 41면, 서문 2면 등 총 43면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은 화공 김남길(金南吉)이 그렸는데, 18세기 초 제주의 풍속, 생활상, 명승, 군사 요새 등을 담고 있다.

### 2 척박한 섬, 제주

지금의 제주는 살기 좋은 관광도시로 인식되지만, 조선시대에는 매우 척박한 섬이었다. 일단 먹고살 만한 것이 부족했다. 중산간 지역은 말의 생산지로 부각되었고, 농사는 해안가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잡곡 위주의 생산이 행해졌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게다가 감귤·전복·약재 등의

진상 때문에 과중한 공물을 부담해야 했으며, 목자(牧子, 우마 사육의 역에 종사하던 사람)·포작인(浦作人, 전복과 물고기 등을 잡아 진상하는 역을 맡은 사람)·잠녀[(潛女), 해녀]]와 같은 고된 역을 졌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 제주 백성들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터전을 떠나서 유망(流亡)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鼎縣), 정의현(旌義縣)의 군액(軍額)이 감소하였다. 1629년(인조 7) 중앙 정부에서는 제주 섬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출륙(出陸) 금지령을 내렸다. [관련사료](#) 출륙 금지령은 약 200년간 지속되었고, 제주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섬 고유의 언어·풍속·문화 등은 그 독자적 특색이 더욱 강해졌다.

### 3 제주목사 이형상

조선시대 제주목에는 정3품의 목사(牧使), 대정현과 정의현에는 종6품의 현감(縣監)이 각각 파견되었다. 제주도(濟州島)는 행정구역상 전라도(全羅道)에 예속되어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섬이었다. 그리하여 제주목사는 관찰사의 권한까지 일부 위임받아 대정·정의 두 현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는 약 3백 명에 가까운 제주목사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제주에 부임하여 지리지, 읍지 등을 편찬하기도 했다.

1651년(효종 2)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진(李元鎭)은 지리지 『탐라지(耽羅誌)』를, [관련사료](#) 1694년(숙종 20)에 부임한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는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현재 전하지 않음, 19세기의 사본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와 지리지 『지영록(知瀛錄)』을 편찬했다. 이형상 역시 제주 관련 기록을 다방면으로 남겼다.

이형상(1653~1733)의 본관은 전주(全州)로, 효령대군의 10세손이다. 자는 중옥(仲玉)이고, 호는 병와(瓶窩), 순옹(順翁), 호옹(浩翁)이다. 1680년(숙종 6) 별시 문과에 급제한 이후 호조좌랑, 성주목사, 동래부사, 영광군수, 경주부윤 등을 거쳤다. 제주목사로 부임한 때는 50세 때인 1702년(숙종 28)이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노론 이건명(李健命)의 청에 의해 1703년(숙종 29) 파직되었다. [관련사료](#) 소론 계열인 그는 여생의 약 30년을 경상도 영천 강가에 호연정(浩然亭)을 짓고 저술과 강학에 전념하다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796년(정조 20)에는 이형상을 비롯하여 이미 고인이 된 관리들이 대거 청백리(淸白吏)로 추천되기도 했지만, 끝내 의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관련사료](#)

개인문집으로 『병와집(瓶窩集)』이 있다. [관련사료](#) 그의 저술은 성리학, 역사, 지리, 예학, 보학(譜學) 등 다방면에 걸쳐 200여 권이 있다. 그 가운데 ‘이형상 수고본(李衡祥手稿本)’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저술 10종 15책이 유명한데, 수고본 안에 『탐라순력도』와 제주 지리지인 『남한박물(南宦博物)』이 있다. 『남한박물』은 지역 명칭 유래와 자연환경, 사적, 인물, 풍속, 산물, 방어 등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 4 탐라순력도의 구성과 내용

『탐라순력도』에는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 간의 가을 순력이 총 28면에 묘사되어 있다. 순력은 군사 점검의 목적이 컸다. 이형상은 해안가를 따라 설치된 9개의 진성(鎭城)을 순력했다. 제주목 관아를 출발

해서 동쪽으로 가서 정의현(지금의 성산읍)을 거치고 남쪽을 지나 서쪽 대정현(지금의 대정읍)을 들른 후에 돌아 오는 일정이었다. 또한 지도 ‘한라장축(漢拏壯屬)’ 1면, 일상적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 11면, 이형상이 쓴 서문 2면을 포함하여 총 43면으로 구성되었다.

서문과 마지막 면의 ‘호연금서’를 제외하면, 화첩의 각 장은 제목, 그림,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맨 위에는 그림의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는 그림과 관련된 설명이 있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나 해당 지역의 거리 등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남한박물』에도 실렸다. 한편, 2000년에 『탐라순력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표지와 속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제주 속오군의 소속과 신원을 적은 명부인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가 발견되기도 했다.

순력도의 1면은 제주 지도 ‘한라장축’이다. 촌(村)·리(里)의 명칭, 목장, 봉수처, 연대(煙臺), 오름, 포구 등을 표기하였고, 주변 지역과의 방향과 거리 등을 표기하고 있다. 2면의 ‘승보시사(陞補試士)’는 윤6월 17일의 승보시 장면, 3면의 ‘공마봉진(貢馬封進)’은 윤6월 7일에 진상에 필요한 말을 징발하여 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장면, 4면의 ‘감귤봉진(柑橘封進)’은 진상할 감귤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장면, 5면의 ‘굴림풍악(橘林風樂)’은 제주목 관아 내 망경루 후원에 있는 굴밭에서 열린 풍악 장면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41~42면에는 서문이 있다. 제작 배경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인민 9,552호, 남녀 43,514명, 밭 3,640결, 목장 64곳에 국마(國馬)가 9,732필, 국우(國牛)가 703두, 굴나무 2,978그루 등 당시 제주의 실정을 알려주는 수치가 주목된다. 맨 마지막 43면에는 ‘호연금서(浩然琴書)’라는 이름으로 보길도에서 멀리 보이는 제주의 경관을 그린 그림이 있다.

순력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군사 점검 관련 그림이 가장 많다. 각 지역의 군졸, 무기, 군량미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군사훈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화북성조(禾北城操)’에서는 순력을 시작한 첫날 화북진성에서 벌어진 군사훈련의 모습이 담겼다. 이형상은 객사 앞뜰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지켜보고 있고, 군졸은 두 편으로 나뉘어 줄지어 서 있다. 화북진성은 타원형의 옹성으로 여장이 둘러져 있는데, 성곽 위에도 군사들이 정렬해 있다. 성곽 주변에는 민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은 진성의 구조, 병사들의 정연한 모습, 주변 화북포구의 바닷물결과 파도까지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시사(試射, 활쏘기를 시험하던 일)와 전최(殿最, 관원의 근무 상태를 심사하여 성적을 매기던 일) 등도 행해졌다. 11월 6일에 목사 일행은 천지연 폭포에서 활쏘기 시합을 했다. ‘천연사후(天淵射候)’ 그림을 보면, 천지연 폭포의 오른쪽 절벽 위에는 활을 쏘는 사람들이, 왼쪽 절벽 위에는 과녁이 있다. 폭포 중앙에는 가는 줄에 추인(蓊人, 짚으로 만든 인형)이 매달려 있다. 추인은 화살을 쏘아 운반하는 용도였다고 한다. 활쏘기 시합을 보는 군졸들과 군기(軍旗)의 위용이 폭포의 경관과 제법 어우러지는 장면이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에서는 각각 양로연(養老宴)이 행해졌다. ‘제주양로(濟州養老)’의 경우 순력에서 돌아온 날인 11월 19일에 제주목 관아에서 열린 양로연을 묘사하였다. 초청된 노인들은 제주목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3인, 90세 이상 23인, 80세 이상 183인이었다. 그림에는 제주목관아 앞뜰에 흰 장막을 치고 양로연을 즐기는 목사와 노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악공과 기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두 무동이 춤을 추면서 그들의 흥취를 돋우고 있다.

명승을 탐방하는 행사도 있었다. 순력 기간에는 김녕굴,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산방산 등의 경관을 유람하였다. 이곳들이 당시에 제주의 명승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곳이다. 한편 왕자구지(王子舊址)라는 장소도 있는데, 그곳은 옛 탐라국 시절 왕자의 집터가 있었다가 조선 세종대에는 중추원부사 등을 역임했던 고득종(高得宗)의 별장이 있던 터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형상이 그곳을 탐방하여 연회를 베푼 장면이 ‘고원방고(羔園訪

古)’에 그려져 있다. 그는 순력 기간이 아닐 때 성산일출 등의 제주 경관을 보러 가기도 했다. ‘성산관일(城山觀日)’에서는 1702년 7월 13일 성산포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일출과 그것을 보는 목사 일행이 묘사되어 있다.

순력이 아닌 일상적 행사 장면을 그린 11면은 진상과 목장 관련 행사 그림이 다수이다. 한편, ‘병담범주(屏潭泛舟)’는 그림 아래에 설명이 없는데, 그림에는 취병담(현재의 용연) 바다에 배를 띄어놓고 기녀들과 유희를 즐기는 목사 일행의 모습이 담겼다. 그 옆 용두암 근처에서 물질하는 잠녀(해녀)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이채롭다. ‘건포배은(巾浦拜恩)’은 12월 20일에 관리 3백여 명이 조정을 향해 배례하고 그 이튿날에 읍성 밖 신당(神堂)들을 불태우는 장면이 함께 묘사되어 있어 흥미롭다. 신당이라는 무속 공간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목사 이형상의 입장에서서는 혁파 대상이었다. 하지만 거친 바다와 잦은 재변(災變)이 일상이었던 섬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었다. ‘건포배은’의 검은 잿빛으로 불타는 신당, 그 모습을 뒤로하고 조정에 배례를 올리는 목사 일행과 제주 섬사람들의 모습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사회의 거리가 느껴진다.

## 5 탐라순력도의 가치

조선 후기의 지방관들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부임지의 지리, 풍속, 역사 등을 다룬 여러 기록물과 회화를 다수 제작하였다. 『탐라순력도』 역시 그러한 경향 하에 제작되었는데, 현재 지방관이 만든 화첩으로서 ‘순력도’라는 이름을 가진 기록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다. 저자, 화공, 제작 동기 등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18세기 초 제주의 지리, 문화, 군사, 풍속, 의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